

LOCAL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잘나가는 '화순팍', 매출 32억 돌파

해남, 군정 '통계연보' 발간 15개 분야 179개 항목 수록

해남군이 31일 제64회 해남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해남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 기후, 인구, 교육 등 총 15개 분야 179개 항목을 수록해 1년여 동안의 군정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공표된 15개 분야는 연혁, 토지·기후, 인구, 노동·사업제, 농업수산업, 광업제조업·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주택건설, 교통·관광·정보통신, 보건·사회보장, 환경, 교육·문화, 재정, 공공행정·사범으로 지역 전반의 자료를 다뤘다.

특히 연보 전반부에는 토지, 인구, 재정 등 군정 주요현황을 도표로 정리해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도 쉽게 통계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한편 해남군 통계연보는 군정 각 분야의 변화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1966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연보는 해남군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정보공개→통계정보→통계연보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광양, 인재육성 영어캠프 운영 6일까지 초·중등 170명 참여

광양시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권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영어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교와 중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합숙형으로 운영되며, 8월 6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학생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수준별 반 편성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받는다. 참가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올해 영어캠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인연의국어마을이다. 이 기관은 우수한 원어민 강사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특색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캠프에서는 글로벌 문화 이해와 실생활 중심 영어교육을 결합한 통합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영어로 익히고 협동심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콘텐트 '오징어게임'에서 착안한 세계 전통 놀이 체험도 마련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군 농특산물 쇼핑몰...상품 다변화·마케팅 강화 주요 하반기 화순사랑상품권·모바일 쿠폰 등 사용 기대감

화순군이 운영 중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에 소비자들이 몰리며 매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화순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화순팍의 올해 누적 매출액이 32억원을 기록했다.

화순팍은 민선 8기 화순팍 활성화 공약으로 단기간에 대폭 성장, 지난 2021년 5000만원에 불과하던 연 매출이 지난해 36억7000만원으로 증가하며 약 73배 성장했다. 이러한 급성장은 전국 자치단체 운영 온라인몰 중 매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화순팍의 연간 매출실적 목표는 50억원으로, 이는 3년 만에 약 100배 성장을 의미한다. 화순팍의 상반기 주요 매출 요인으로는 입점 상품의 다변화,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가 꼽힌다. 특히 군 대표 과일인 복숭아 등 다양한 농특산물 입점을 비롯해 온

라인상에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탄 가공식품 등 생산 생활용품까지 함께 판매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 공공플랫폼의 활용도 확대가 주효했다.

또 인플루언서 협업, SNS 바이럴 마케팅, 우체국쇼핑 연계 확대, 화순 불꽃축제와 복숭아 직거래장터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모션 활동도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는 화순팍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모

델로 전면 교체된다. B2B(기업 간 거래)와 B2C(소비자 직접 판매)를 결합한 양방향 유통 플랫폼이 공공 쇼핑몰에 구현되는 첫 사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화순사랑상품권 간편 결제, 화순팍 e-선물카드 발행, 인플루언서 연계 공동구매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팍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5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화순민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발굴과 함께 다양한 판촉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몸과 마음에 활력을" 함평군은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6주간 함평군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에서 '다시 봄, 한방 캠프'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기반 건강 교육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위해 기획했다. 사진제공=함평군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 지정...경제 활력 기대

107개 상점...전통시장 연계 등 상권 환경 개선 앞장

담양군이 최근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앙로 일대로, 4만227㎡ 면적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현재 107개 상점이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결제 시에는 결제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디지털은누리 10%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은 더 알뜰하게 소비하고, 상점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구역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은누리상품권 가맹점과 함께 정부·전남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지정을 앞두고 점포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을 중시 상점가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앞으로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관광지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원도심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높일 계획이며, 이번 첫 지정을 시작으로 소규모 상권을 지속 발굴해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news@

나주, 축산농가에 재난극복 감사 편지 전달

윤병태 시장, 신속한 복구·지원 약속

나주시가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앞장선 농축산인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1730여 농가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장마와 역대급 집중호우 그리고 이어지는 폭염까지 이중고 속에서도 축산현장을 지키며 피해 복구에 힘쓰고 계신 농축산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에는 최근 강수량 542.2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지만 하수관 준설과 배수로 정비 등 선제적 대응과 전 직원의 비상근무 체계로 축산 및 농작물 피해는 최소화됐다는 평가다.

시는 침수 피해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장비와 인력, 처리비 등을 긴



나주시장 조병태 시장

급 투입해 폐사축 처리를 신속히 완료했다.

또 폭염 대응을 위해 5억8000만원 규모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자체 예산 4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8월 초까지 모든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하고 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

신안, 다이아몬드 해역 조피불락 35만마리 방류

신안군은 지난 5월 말 다이아몬드 해역에 쥐노래미 종자 55만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31일 조피불락 종자 35만마리를 추가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조피불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다이아몬드 해역 내 어초 투하 지구에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산상 방류할 계획이다.

다이아몬드 해역은 신안군이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90억원의 예

산을 투입,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으로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1027개 어초 투하와 수산 종자 95만마리를 방류했다. 오는 10월 중에는 2025년도본 어초 194개를 추가 투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2026년도 불락류 산란·서식장 조성(50억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 현재 공모를 기다리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국내생산제품
국내최고 품질을 자랑합니다.

(주)JH금속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물류시스템으로 국내최고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광주·전남 유일의 관 이음쇠 생산공장

세계 최대 소재(주물)공장
최고 품질의 소재
최신 자동 가공설비로 완벽한 품질의 국산 제품 생산

서울·부산
물류센터 운영

국내
직접 가공

전국
당일배송

본사·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9
062)955-2166 062)955-2167

시흥지사·부산
경기도 시흥시 갈매로 190번길 5 T.031)312-2166 F.031)311-2167

부산지사·대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135번길 37-1 T.051)971-9027 F.051)973-9027